하나님 있다는 느낌의 극대화

(말라기 1:1~14)

6.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7.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있다는 느낌의 극대화>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 있다는 느낌의 극대화'
흔히들 존재감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존재감이란 사람이든지 사물이든지 그것이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만 이 존재감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존재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있으면서도 존재감은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의가 이루어지는 장면을 생각해봅니다. 큰 목소리로 많은 말을 하고 부산을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마다 핵심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한 마디로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내 듣기만 하다가 마지막에 무심코 한 마디를 던졌는데 회의의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면을 전환시킵니다. 이럴 때에 큰 존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 모두 회의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존재감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성공적인 사회생활은 한 마디로 타인에게 나의 존재감을 줄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존재감을 주고 있느냐는 것은 곧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행복이라는 기준에서 보자면 존재감이란 타인에게 줄 때보다 타인에 대해 느낄 때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가장 완벽한 존재에 대한 존재감이 내 안에서 극대화 될 때에

행복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스타들을 좋아합니다. 한 청춘스타의 존재감에 충만해진 여중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청춘스타는 이 여중생에게 막대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존재감에 충만해진 여중생과 존재감을 뿜어내는 스타의 관계에서 누가 더 행복할까요? 이 학생에게는 지금 열광하고 있는 청춘스타야말로 세상의 전부입니다. 그렇기에 스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반대로 청춘스타에게 이 여중생은 수많은 팬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스타가 팬들에 대해 감사할 수는 있으나 팬에게 열광할 수는 없기에 의례적인 태도로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모습을 직접 본적이 있습니다. 여배우가 광고를 찍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돌아갈 때와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을 때의 표정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천지차이였습니다. 이처럼 스타의 존재감이란 카메라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항상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나라가 독립하게 되면 장관 자리라도 하나 얻어 보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인간 세상에서 넓히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산에서 하늘에서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존재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산 사건에 근거하여 행복을 정의해보자면 가장 완벽한 존재에 대한 존재감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일을 원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으로써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타인이 느끼는 나의 존재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어떠한지가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존재감을 어떻게 극대화 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 부자 되세요, 하나님 재벌 됩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만 대체 어떻게 하나님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될 수 있을까요? 삶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고 무거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자 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말라기서는 역사적 배경이 참 암울한 시대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작업이 다시 시작된 것이 BC.520년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BC.516년에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스가랴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 예언이 많이 주어진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메시아 예언은 더 앞선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도 예언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성전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더 많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선민들은 메시아 왕국을 환경적이고 물리적 차원에서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를 되찾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들의 바람과는 달랐습니다. 성전 재건으로부터 거의 100년이 지난 BC.450~430년이 되어서도 선민들의 삶에는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뭄이 겹치고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 식량난을 겪었고 여전히 바사 제국의 식민지로써 세금을 바쳐야 하는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선민 사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 또한 희미해져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새로 재건된 스룹바벨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식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의식들에 진정성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거론하며 하나님의 존재감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더러움과 보잘 것 없음에 대한 언급이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7절을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떡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레켐"은 사람이 먹는 음식 전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물이 더러워졌음을 의미합니다. 또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제사에는 흠 없는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눈멀고 다리 절고 병든 희생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 즉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증거로 제사 원칙이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존재감은 곧 드림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6절의 뒷부분을 보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고 또 8절에서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선민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이 아버지나 주인은커녕 이방인 관리보다도 더 가볍게 취급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감은 곧 드림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 결코 자신을 내어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사장들의 특징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좋은 번제물을 가로채고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병들고 다리 저는 것을 제물로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그 일이 잘못인줄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교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교회가 잘못된 것을 당사자들이 모른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쓰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러한 태도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제사장들이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이 작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존재감이 큰 사람 앞에서는 말 한 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모두 조심스럽습니다. 반대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앞에서는 전혀 조심스럽지 않고 무례할지라도 마음에 걸림이 없습니다. 길을 가다 벌레를 밟아서 죽여도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유는 그 벌레가 아무런 존재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고위 공무원이 “국민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망언을 하여 큰 물의를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의 마음에서 국민들에 대한 존재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부패한 권력집단이 재산을 불리기 위해 정적을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보통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명품 백과 고급 차를 위해서 터무니없이 큰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꼭 이런 부정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장이 애써 번 돈을 가족들을 위해 다 쓸 수 있는 이유 또한 존재감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내 마음에서 존재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라면 애써 번 돈을 아낌없이 쓸 수 있습니다.
납치범은 부모가 가진 자녀의 존재감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부모에게 가장 큰 존재감을 납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존재감이 무거울수록 줄 수 있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선민사회에서 제사장들에게서조차 하나님의 존재감은 심각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병든 것을 제물로 드리면서 그것을 잘못으로 여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상대 앞에서 잘못을 깨닫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고 무겁게 느낀 대표적인 사례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납니다. 12절을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을 크게 갖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재감을 크게 느꼈다면 결코 눈멀고 다리 절고 병든 제물을 드리지 않

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의 첩경입니다. 내가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하나님이 있음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다 보면 계급이나 지위를 통해 특별히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편 어떤 일이나 과제가 주어졌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달리 없어서 돋보이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내 안에서 극대화 시켜나가는 길은 후자입니다.

제가 카투사로 군복무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복무기간 중에 절반은 비행대대에 있었고 절반은 부관중대에 있었습니다. 비행대대에 있었을 때에는 비행기 뼈대를 수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미군 두 명과 함께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선임들이 모두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인원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저 혼자 남게 되었는데 관측용 헬기 18대와 다용도 헬기 7대를 혼자 정비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정비창의 상사가 와서 혼자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주어지는 일마다 단계별로 해나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 개월 동안 모든 정비를 혼자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대대에서 표창장이 주어졌고 미국방부로부터 공로훈장에 추천되기도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다른 부대로 옮기면서 훈장은 흐지부지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 당시 부대 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저 밖에 없었기에 저의 존재감이 최고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이 단순한 느낌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복잡하고 심오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배우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깝고 크게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존재감을 기준으로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을 극대화시켜 나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읽지 않은 2절 이하를 보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에돔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

의 태도가 4절에 나타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선민이 아닌 자들은 삶을 스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선민의 삶은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구약에서는 성전의 생활화였고 신약 이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자신 밖에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으시는 유일한 존재가 되시게 만들어 드립니다.
제가 비행대대에서 25대의 헬리콥터의 동체 정비를 특별히 잘했기 때문에 맡았던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드려야만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움직여 가실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맡으실 유일한 분으로 믿으며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상대할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라고 기도하며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있음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나의 존재감을 확장시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존재감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대처하고 처리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에돔 사람들처럼 스스로 하려는 자들은 불신앙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인이 아닌 하인처럼 부리려고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 일을 맡아 하실 유일한 분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현실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며 삶에서 하나님이 존재감을 극대화시켜 나가야는 것이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이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여러분은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존재감이 커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도맡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이기에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고 하나님이 사시고 성령님

이 살아가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느낌을 자꾸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지 않는다면 삶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세속적으로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흥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에돔 사람들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는 것은 제물을 드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며 나의 삶 전체가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의 존재감을 극대화시켜 나가면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지는 복지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 자체가 기가 막히는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을 맡아 행하실 분이 하나님뿐이심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상황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느낌이 극대화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을 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